



성신문화사 신사옥 준공식 북라벨 시장 크게 성장할 것... 디지털 장비 지속 투자

성신문화사(대표 운영철, www.북라벨.com)는 지난 1월 10일 오후 5시 신사옥 준공식을 갖고 2014년 청마의 해를 힘차게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준공식에는 성신문화사의 임직원을 비롯해 거래처 고객 등이 참가했으며, 사업 대박과 임직원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식이 함께 열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운영철 대표는 신사옥 준공식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신사옥 준공식을 하게 돼 소회가 남다르다. 너무 기쁘다. 어떤 이는 기적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는데 나 역시 그 말에 공감한다. 20년 전만 해도 48시간 동안 잠도 안자고 일을 해야만 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신사옥 준공식을 갖고 다양한 설비를 도입할 지 몰랐다. 여기에 오기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운영철 대표는 또 “오늘 이렇게 신사옥 준공식을 갖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은 멀다. 성신문화사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줬으면 한다. 나 역시 열심히 달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268㎡ 규모

성신문화사가 구입해 리모델링한 사옥은 연건평 268㎡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신사옥 지하 1층은 스티커 라벨 생산실로 이와사키 LR 로터리 인쇄기 3대, 신세계 엔지니어링의 SSG-350CR 라벨 커터기와 리와인더 등을, 2층 북라벨 생산실은 디지털플렉스 Flexojet

1725 CTP를 비롯해 성신문화사가 자랑하는 Abg Flytec5010 북라벨 제작기계와 슬레이트, 하이텔베르그 T1-52 접지기를 보유하고 있다.

스티커 라벨 제작기인 이와사키 LR 로터리 인쇄기는 망점의 전자동 제어로 완벽한 색상구현이 가능하며, 골테이프 제작과 동시에 인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UV코팅, 라미네이팅, 부분 엠보싱, 금·은박 동시작업, 정면·배면인쇄 동시작업 등이 가능하다.

Abg Flytec5010 북라벨 제작기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시간당 3만6천장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35~80mm의 북렛은 시간당 3만장, 80~140mm의 북렛은 시간당 1만2천장까지 작업할 수 있다. 하이텔베르그 북라벨 접지기는 제품 사용서, 설명서 등을 24p까지 한 번에 접지가 가능하며, 상하 쌍방향 폴접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성신문화사는 보다 완벽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QC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롤로 감겨 있는 라벨류의 특성상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QC 시스템’은 합격된 인쇄물을 컬러별,

사이즈벨, 인쇄품질 등을 기억시켜 출고전 고속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고객사의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성신문화사 최종병기 '복라벨'

성신문화사는 이중라벨, 리플렛, 복라벨, 설명서 라벨, 디자인문 구용 라벨, 식품용기 라벨, 제약용기용 라벨, 마트 및 일반매장 진열용 라벨 등을 제작하고 있다. 다양한 라벨 제품 중 한정된 제 품공간에 표기가 어려웠던 해당 제품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중라벨이나 리플렛, 복라벨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영철 대표는 "선진인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독일, 이탈리아 등 라벨 선진국들을 방문했다. 라벨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제약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복라벨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라벨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해 국내에서 기계 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자동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Abg의 전자동 복라벨 제조기를 도입하게 됐다. 기계 개발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맞게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보호테이프가 부착돼 있는 복라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복라벨은 한쪽은 제책데 있어 고정되고 책을 넘기는 부분은 고정되지 않아 펼쳐거리지만 보호테이프를 부착해 라벨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복라벨 보호테이프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 6월 실용신안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 윤영철 대표는 "복라벨 보호테이프는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 실용신안 특허 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 복라벨 보호테이프는 성신문화사의 복라벨을 유럽의 제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술력을 적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라벨, 제약·농약 제품에 주로 활용

복라벨이 없었던 경우에는 설명서가 따로 첨부돼 판매되고 있지만

설명서는 한번 보고 잃어버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이 지난 후에는 소비자가 제약과 농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제약이나 농약 병에 설명서가 책의 형태로 부착돼 있으면 사용할 때마다 볼 수 있어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

복라벨은 제약이나 농약 제조업체에게는 설명서 제작 및 포장 작업을 포함한 작업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주의사항을 늘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윤영철 대표는 "복라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 많은 업체들이 복라벨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복라벨을 접해 본 업체는 그 장점을 잘 알기 때문에 제작을 검토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 앞으로는 제약과 농약뿐 아니라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복라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10년보다 향후 1년이 기술발전 빨라

라벨인쇄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의 기술발전 속도보다 향후 1년 동안의 기술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말도 있다. 윤영철 대표는 지난해에도 디지털렉스의 CTP와 주문제작한 라미네이팅기 등을 도입하는 등 매년 최신 기계를 도입하고 있다.

윤영철 대표는 "현재 복라벨 시장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라벨의 장점과 효용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철 대표는 또 "지금 라벨 업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은 필수적인 만큼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기 전까지 올해는 디지털에 대한 공부를 더할 것이다. 앞으로 3~4년 동안 디지털인쇄 장비에 2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1. Abg Flytec5010 복라벨시스템 2. 성신문화사 신사옥 3. 사업대학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 4. 성신문화사 윤영철 사장 5. 완성된 복라벨 6. 최근 도입한 디지털렉스 Flexojet 1725 CTP